

종로학원 선배의 재수 성공 가이드

서울대학교 전기전자공학부 신경환



안녕하세요 종로학원생 여러분 여러분보다 일 년 앞서 종로학원에서 공부한 신경환이라고 합니다. 재수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하는 고민과 걱정을 조금이나마 일찍 경험해본 학원 선배로서 여러분의 재수생활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 수기를 쓰려고 합니다.

나만의 공부법을 찾자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공부를 어떻게 해야 좋을지, 또 어떤 방법이 효과적인지에 대해 물을 때가 있었는데, 사실 자기에 맞는 공부 방법은 스스로가 찾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학창시절의 경험과 재수학원 재학 중의 경험을 토대로 저만의 공부 방법을 찾았고 덕분에 성적향상을 이루었습니다. 재수생활의 조급함 때문에 다른 사람의 모범답안만 사용하는 것은 오히려 재수생활을 망치는 길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른 사람의 공부 방법에서 도움을 찾는다면 좋은 일이겠지만 무작정 따라하기식의 공부법은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공부 방법을 찾으세요. 성적 향상은 자기에 맞는 공부 방법에서 시작됩니다.

체력을 유지하자

재수생활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한 재수생들의 필수 덕목은 체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된 재수생활을 하다 체력이 저하되는 경우는 허다합니다. 체력이 떨어지면 공부가 될 리가 없고 이는 보통 정신적인 압박감으로 이어집니다. 압박감은 재수생들의 정신력과 체력을 갉아먹을 것이고 이는 더욱 심한 체력저하로 이어집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일주일에 한 두 번 운동을 해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일주일에 세 번 정도 운동을 했고 덕분에 재수 생활을 하면서 체력저하를 체감할 수 없었습니다. 이는 다른 친구들이 허덕일 때 저에게 앞으로 더 나아갈 원동력을 주었습니다. 체력을 유지하기 위해 꼭 운동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자신만의 방법으로 체력을 유지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세요. 일주일에 몇 시간만 투자해 체력을 유지하는 것이 체력저하로 인한 슬럼프보다 낫다는 사실에 반대할 사람이 몇이나 있겠습니까.

페이스를 유지하자

체력과 페이스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자동차에 비유하자면, 체력을 달리게 해주는 엔진이라 하면 페이스는 속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누가 제게 재수생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나고 묻는다면, 저는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페이스 유지라고 말 할 자신이 있습니다. 재수생들이 실패하는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일까요. 저는 재수 초반과 후반의 다름에서 실패가 찾아온다고 생각합니다. 초반에는 열심히 하지만 후반에 헤이해지는 친구들 얘기를 여러분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절대 빨리 가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빨리 가려고 하면 할수록 일찍 지칠 수 있기에 적당한 속도로 페이스를 유지하는 것이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빠르지 않아도 괜찮으니 여러분들이 초반에 공부하던 정도를 끝에서도 유지해 주세요. 페이스 유지에 성공했다면 여러분은 재수의 절반을 성공했다고 생각해도 무방합니다.

모의고사는 수능이 아니다

여러분들이 볼 시험은 2017년도 수능이지 6월 9월 평가원이나 사설 모의고사, 또는 교육청 문제가 아닙니다. 모의고사로 일희일비하는 것은 정말 바보같은 짓이라고 생각합니다. 모의고사는 여러분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주는 지표지 여러분이 수능에서 몇 점을 맞을지 예측해 주는 지표가 절대 아님을 명심해 주세요. 모의고사를 잘 못 본 학생들은 자신을 분석해서 그런 결과가 다시 나오지 않도록 하면 되는 것이고, 잘 본 학생들은 더욱더 자신을 갈고 닦는 것이 성공적인 재수생활의 지름길이 아닐까요. 다시 말하지만 모의고사와 수능은 절대 같은 것이 아닙니다. 모의고사 결과에 연연하다가 더 큰 것을 놓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수생활에도 끝이 있다

저도 여러분들과 같은 상황을 작년에 겪었습니다. 매일 아침잠과의 사투를 벌이며 학원에 왔었고, 피곤함에 못 이겨 졸면서 공부한 적도 있습니다. 대학에 간 친구들을 보며 질투심을 느낀 적도 있고, 재수의 압박감 때문에 고통 받은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날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지난날들에 대한 후회는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은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재수생활에도 결국에는 끝이 온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중간에 포기하지 마세요. 끝이 있는 것에 두려움을 느끼고 포기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계속 나아가다보면 언젠가 여러분들이 종점에 도착해서 뒤를 돌아볼 날이 올 것입니다.

종로 학원생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종로학원에서 절대 후회하지 않을 그런 재수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수생활을 불행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길을 한 번 더 선택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옆에는 훌륭한 선생님들과 여러분들을 지지해주는 부모님들이 계십니다. 주위에 항상 여러분들을 응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고 1년 동안의 재수 생활에서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는 최대한을 얻으시길 바랍니다.